



위장된 축복, 癌!



부산시청 출입 당시

“림프종입니다.” 의사는 조직 검사 결과 림프종이라고 확인했다. 지난해 우연히 찾아간 병원에서 림프종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은 후 부산대병원에서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받은 것이다. 애초 림프종이란 병명에 당황했던 나는 림프종이 암이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당황했다.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임파선암으로도 불린다. 그 후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이제는 부산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사실과 전후의 이런저런 일들을 말하자면 책 한 권은 되겠다. 다만, 그 누구도 대신해 아파 줄 수는 없고 그러니 가능한 아프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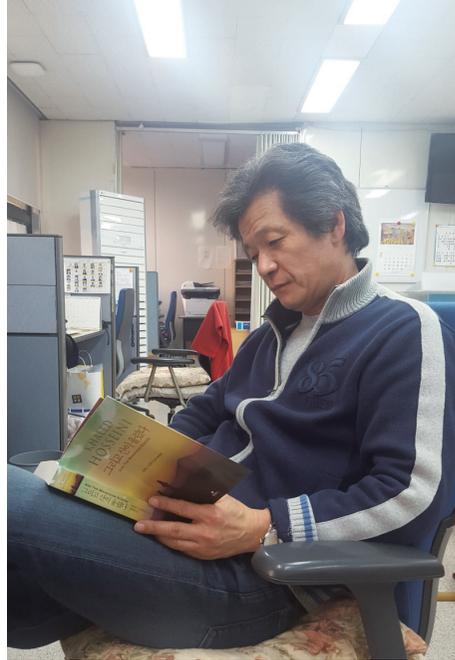
는 것은 꼭 말하고 싶다.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의 걱정과 격려는 큰 힘이 되고 ‘결혼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오롯이 자신이 견뎌내야 한다.

기자 생활 30년 차. 그동안 이런저런 잔병이야 있었지만 입원 한번 한 적 없고 겨울철에도 냉수욕을 할 만큼 건강 체질임을 자부했는데 암이라니! 진단 후 골수검사 등 추가 검진을 위해 입원한 날 어찌나 서글펐던지... 가을이 끝나갈 즈음 난생처음 입원해 비까지 내리는 창밖을 보는데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감정들이 몰려왔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이야 심리적으로 안정됐고 육체적으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그야말로 오만 가지 생각에 갈팡질팡하곤 했다.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갑작스러운 짜증이 나고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했다. 암 진단 후 돌아 보니 현재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과거 건강관리에 무관심했던 대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다른 일로 우연히 찾아간 병원의 의사가 나에게 림프종 징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는데도 나는 차일피일 몇 달을 미루었다.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림프

중 때문에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다) 굳이 굶어 부스럼 만들 필요 있겠냐는 생각이었지만, 대학병원을 예약하고 진료를 기다리고 외래에 가서 또 기다리고 그 후 입원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또 기다리는 것이 귀찮아 차일피일 미루었다. 아마도 림프종으로 명확히 판정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선배 기자 중에는 건강검진 결과가 무서워 해마다 받는 건강검진을 십수 년째 받지 않은 선배도 있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했고 안타깝게도 그 선배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기자의 일상은 건강에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 지금이야 주 5일제에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나의 꼬마 기자 시절에는 토요일 오전까지가 근무시간이었다. 휴일 기사까지 챙겨서 마감하고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다 보면 오후도 후딱 지나가기 마련이었다. 일요일도 당직이 걸리면 근무해야 했으니 한 달에 2~3일 쉬는 게 고작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했나 싶는데 그때는 20~30대로 힘이 넘쳤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실을 만나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래서 힘든 줄 몰랐고 몸도 견뎌냈던 것 같다. 술도 많이 마셨다. 지금도 기자 직군이 술을 많이 마시는 직종에 속하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다. 회사 회식에 기자실 회식에, 개인적인 취재원 관리를 위한 자리



부산시교육청 출입 당시

에, 낫술에 밤술도 부족해 아침 해장술까지... 매일 저녁 이러 저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것이 기자로서 업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알았다. 쉬는 날이면 피곤에 절어 잠이나 자는 게 고작이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에겐 지금도 미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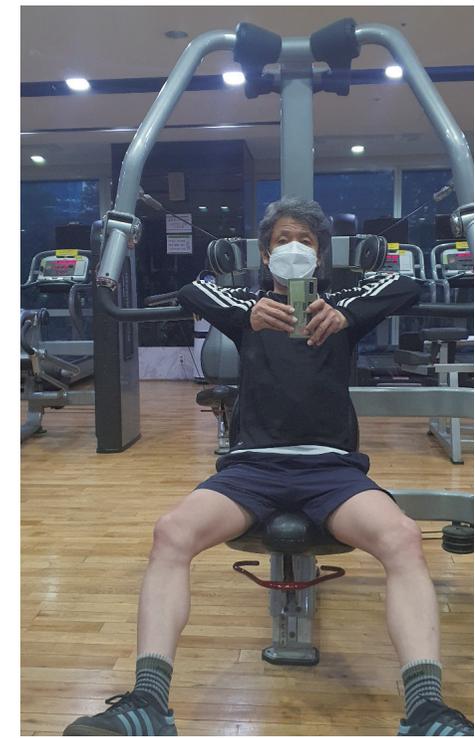
내가 초대할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온 암, 친해지기로 마음먹었다. 투병 기간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뭔가 하고, 얻을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생전에 이어령은 “인생의 불행마저 행복으로 역전시키는데 삶의 묘미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아닐지라도 병의 긍정적인 면을 찾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병으로 얻은 것이 의외로 많다.

우선, 아파보니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와 주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더불어 관계에 있어 옥석을 가리게 됐다.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연락을 끊거나 반대로 나와 관계가 소원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수시로 전화해 병의 상태를 묻고 위로해 주기도 한다.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아프면서 상대의 진심을 읽는 법도 조금 익힌 것 같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위로를 하지만 진심으로 와닿는 위로와 건성건성 하는, 이른바 영혼 없는 위로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

암 진단후 시작한 운동. 암은 나의 몸에 운동을 명령했고, 그로 인해 흘린 땀은 10가지 병을 막아 낼 것 같다.



람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병 덕분에(진심으로 ‘덕분에’ 다) 술, 담배도 끊게 됐다. 해마다 새해에는 금연과 절주를 목표로 세웠다가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비웃음만 샀는데, 아프게 되니 저절로 금연, 금주에 성공했다. 엄밀히 따지자면 ‘금연, 금주당했다’가 맞는 표현이겠지만... 생활 방식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귀가 시간이 늘 밤 12시 전후였고 그러다 보니 하루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하기 일쑤였다(아마 지금도 상당수의 기자들이 이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은 저녁 약속은 되도록 삼가고 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것도 있지만 점심때만 잘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다.

저녁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과 대화도 하게 되고 독서도 하게 됐다. 무엇보다 운동을 하게 됐다. 매일 운동을 해서 인지, 아니면 술, 담배를 끊어서인지 요즘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한다. 인사치레라 해도 예전에 듣지 못했던 말이라 기분 좋다. 저녁 약속을 줄이면서 자기 전까지 뉴스 시청 등 이런저런 시간을 빼고도 하루 3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년이면 1000시간이 넘는다. 반만 해도 500

시간. 그 시간이면 자격증을 따든 전문 서적을 읽든 뭐든지 계획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나는 요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얼마 전 지인이 오랜만에 부산을 방문해 저녁에 만난 적이 있다.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동석만 했는데도 오래간만에 밤늦게까지 밖에 있어서인지 그 다음날 어찌 피곤하던지... (아! 그동안 거의 매일 저녁 어떻게 모임을 이어왔을까!)

요즘은 음주 가무가 없어도 저녁에 재밌는 시간이 이어진다. '림프종'이란 질병이 나에게 '위장된 축복'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불행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복인 셈이다. 만약, 림프종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지금도 주 5일(어떤 경우 6일) 점심 저녁으로 흡연에 음주 가무로 몸이 망가져 가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즘 나는 림프종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질 나를 상상하며 감사하고 있다. 아프지 않을 때보다 감사한 게 많아진 요즘이다. 가끔은 내가 아프기 전에 운동도 조금 하고 약속도 반만 줄이고 시간을 잘 활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러한 것들을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어딘가?

It's better than nothing! 지금 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겠다. 직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의 몸을 값아먹는 대가라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는 평소 몸을 아끼고 만들어야 한다. 가기 싫은 곳도 가야 하고 하기 싫은 짓도 어떤 때는 해야 하는 것이 기자라면, 그 때를 대비해야 한다.

또, 세상에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치료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한 후배 기자는 부친이 나와 같은 병을 앓았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또 다른 동료 기자는 몸에 좋다는 건강 식품을 보내오기도 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고 서울을 오가는 동안에 받은 많은 이들의 도움은 잊을 수가 없다. 한 친구는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서울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 각종 증명서를 떼 주기도 했다. 많은 민폐를 끼쳤다. 앞으로 내가 갚아 나가야 할 빚들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 앞으로 더욱 겸손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이와 함께, 매일 저녁 기도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집에 와 쓰러지기 바빴던 지난 생활과는 천양지차다. 절대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도 해본다. 병에 걸리



병원입원 당시. 입원하면 힘들고 모든 것이 불편하다. 부디 아프지 않도록 미리미리 애쓰자.

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언감생심이다.

하나의 병으로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 운동과 기도 등을 하게 되면서 10개의 병을 막게 됐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海納百川 有容乃大(바다는 모든 냇물을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커진다).

아프고 난 이후에 매일 보는 글이다. 전에는 호불호를 너무 명확히 했던 것 같다. 이제는 나이도 들어가는 만큼 남의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려고 노력한다(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놈들을 용납하지는 뜻은 아니다). 류시화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도 다시 읽고 있다. 짧은 글로 이루어져 읽기도 쉽지만 지금 나의 형편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좋다. 그야말로 좋

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는가? 로또 1등 당첨이 반드시 좋았던 것은 아니지 않았던가! 지금 아픈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이 순간만 잘 넘기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

터널은 어둡지만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한다. 어둠은 고통이지만 고통이 끝나면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었음을 알게 된다. 니체가 말했던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라고.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나에게 온 '림프종'만 극복하면 나는 더 강해지고 지름길로 가고 있을 거라는걸. 그래서 나는 '위장된 축복'을 받고 있다. 나처럼 이런저런 병을 갖고 있는 모든 동료 기자들에게 파이팅을 보낸다. 성경에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는 편안하게 섭리에 맡기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암만 생각해도 기자는 정말 멋진 직업이다. 지금 기레기니 뭐니 하면서 욕을 먹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기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말 멋진 직업이다. 그래서 더욱 제대로 해야 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택할 것이다.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지금보다는 조금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의욕에 비해 재주가 없음을 한탄해야겠지만... 🍀